

제3부 · Claude Code로 직접 만들기

제2편 · Claude Code · 23~34단계 · Claude Code를 설치하고 GitHub를 거쳐, 다른 사람이 열어 볼 수 있는 주소까지 만든다

단계	핵심 한 문장	난이도
23 · 코드를 못 써도 만들 수 있게 됐다	이제 코드를 몰라도 도구를 만들 수 있다. 다만 받은 결과를 판단하는 눈만큼은 내가 가져야 한다.	★★☆
24 · 설치 전에 준비할 것	설치에서 막히는 이유는 대개 설치 전에 있다. 계정, 터미널, 폴더, 회사 정책부터 확인하자.	★★☆
25 · Claude Code 설치와 첫 실행	설치 명령은 공식 문서에서 복사한다. 설치가 끝나면 작업 폴더에서 켜고, 허락 요청을 하나씩 읽는다.	★★★
26 · 규칙은 CLAUDE.md에, 큰일은 계획부터	매번 하는 설명은 파일 하나에 적어 두고, 큰일은 계획을 받아 읽은 뒤 말긴다. 읽지 않은 계획은 승인한 것이 아니다.	★★★
27 · 코딩 없이 쓰는 Claude Code	Claude Code는 개발 도구이기 전에 파일을 다루는 일꾼이다. 원본은 두고 사본에서 시키며, 받은 숫자는 반드시 다시 맞춰 본다.	★★☆
28 · Git Hub 계정과 첫 저장소	내 노트북에만 있는 것은 아직 도구가 아니다. GitHub에 올리고 눈으로 확인하는 데까지가 한 걸음이다.	★★★
29 · 커밋·푸시·되돌리기	커밋은 이름표, 푸시는 보내기다. 되돌려 본 사람이라야 큰일을 마음 놓고 말긴다.	★★★
30 · 배포: 동료의 휴대폰에서 열리는 주소	만든 도구를 팀이 쓸 수 있게 올린다. 내 화면에서 열린다고 남의 화면에서도 열린다는 보장은 없다.	★★★
31 · 배포가 멈출 때, 그리고 안전장치	배포는 생각보다 자주 멈춘다. 다행히 멈추는 곳은 대개 정해져 있다. 무엇을 묻지 않고 해도 되는지는 내가 정한다.	★★★
32 · 혹·서브에이전트·MCP로 넓히기	부탁은 가끔 빠지지만 장치는 빠지지 않는다. 꼭 지켜야 할 것은 혹으로, 나눌 일은 서브에이전트로, 바깥 도구는 MCP로 붙인다.	★★★
33 · 다 됐다는 말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	고쳤다는 것과 동작한다는 것은 다르다. 직접 돌려 본다.	★★★
34 · 제3부 결과물 발표: 주소 하나로 시작한다	배포된 주소를 열어 보여 준다. 기준은 하나, 동료가 받아서 다음 주에 그대로 쓸 수 있는가.	★★☆

이 부의 과제 · 우리 팀 사내 도구 하나를 설치부터 배포까지 완성하고, 업무 파일 정리 한 건을 Claude Code로 처리한다.

완료 기준

- 평가자가 자기 휴대폰으로 주소를 열고, 가장 중요한 동작을 도움 없이 끝까지 해 본다.
- 커밋 목록에 한 가지씩 나뉜 우리말 메시지가 있고, 일부러 깨뜨렸다가 되돌린 기록이 하나 이상 남아 있다.
- 문구 하나를 고쳐 푸시하면 같은 주소에 반영되는 것을 평가자 앞에서 보여 준다.
- 저장소, 커밋 기록, 화면 코드 어디에도 인증키·비밀번호·실제 고객 정보가 없다. 키를 쓰는 도구라면 환경변수로 읽는다.
- 업무 파일 정리에서 원본 파일이 바뀌지 않았고, 합친 표의 건수가 원본 합과 같다.
- 평가자가 CLAUDE.md와 커밋 기록만 보고 무엇을 어떻게 고칠지 말할 수 있다.